

AI 피해농가, 고통·발병 책임까지 묻는 게 옳은가



이성배

음성경찰서 정보보안과

안타깝게도 충북 음성군에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AI가 발생, 가금류 사육 농민들의 삶을 더 없이 힘들게 하고 있다. 조류인플루엔자는 바이러스성 전염병이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Highly Pathogenic Avian Infiuenza)는 전염성과 폐사율이 높아 정부에서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분류하고 있다.

작년에 음성군에서는 84만수 가량의 오리와 닭이 살처분 되어 농민들은 형언할 수 없는 고통을 당했다. 자식 같은 가축을 묻은 농민의 아픔, 그러나 농민들은 세월호 사건의 여파로 '아프다'는 소리도 못하고 애꿎은 담배만 피웠다.

올해도 음성에서는 벌써 56만수 가량이 살처분 되었으니 이 죽음의 굶판에서 마른 가슴 쥐어뜯을 사람이 한둘이겠는가.

'보상이 나오지 않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실상 농민들은 위탁회사로부터 병아리를 분양받아 위탁사육을 하고 그 사육료를 받는 입장이어서 살처분 보상의 대상이 아니고 오히려 가축을 키우지 못해 생계 수단이 막막한 상황이다.

AI는 주로 겨울철 철새의 배설물에 의해 전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을 뿐 정확한 발병 조건이나 원인, 전파 경로가 확인된 것은 없는 실정이다.

1년 내내 방역과 소독을 했던 농민들은 오죽하면 설 명절에도 그리운 가족들에게 고향집을 찾지 말라고 했겠는가. 그런데 AI가 발병하기만 하면 농민들은 뚜렷한 이유도 없이 죄인의 입장이 되고 만다. 일부러 병에 걸리게 한 것도 아니고 방역을 소홀히 한 것도 아닌데 그야말로 환장할 노릇이 아닌가.

살처분을 했어도 '양성'으로 판정되면 보상금의 80%만 지급되고 자비로 구입한 사료의 폐기 보상금은 40%만 지급되는 현실이 더욱 농민들을 서럽고 억울하게 하고 있다. 게다가 '항체'가 형성된 농가는 살처분 보상금의 20%만 지급되니 마른하늘의 날벼락이 따로 없다.

바이러스가 붉은 보자기를 둘러쓰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뚜렷한 증상도 없는 상황에서 국가가 제1종 가축 전염병으로 지정, 관리하는 마당에 결과만을 놓고 농민들에게 발병 책임 및 추가 전파의 의혹을 보내는 것은 너무 가혹한 면이 있지 않을까.

국가가 최종적으로 책임질 일이라면 국가가 철새 도래를 막을 수 없을테니 최초 발병이후 관리대책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라도 최초 신고 농가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해 예찰 활동 및 신속한 신고를 유도하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 든다.

농민들은 수천만원씩의 비용을 들여 축사를 짓다보니 대부분 빚을 지고 있어 당장 업종을 바꿀 수도 없고, 어디에 하소연 할 곳도 없다.

작년 AI 여파로 거의 오리를 사육하지 못한 음성군 맹동면의 한 농민은 생계안정자금으로 80만원을 받았다고 힘없이 말했다.

그 농민은 올해 다시 살처분을 당하는 친구의 농장에서 검은 속을 태워가며 소주를 마신다고 했다.

정부에서도 예산부족에 여러 가지 힘든 사정이 있겠지만 현장의 농민들과 마주하고 어떤 미비점이 있는지 어려움이 있는지 소통과 상생의 자세로 농민들을 대한다면 다소나마 힘없는 농민들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는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더 이상 농민들에게는 내보일 검은 속이 없다.

출처 : 충청매일 [2015. 03. 24]